

안전한 추석 연휴 위해 의료 인프라 총동원

전주시, 387개 병·의원·153개 약국·24시간 응급의료기관 6곳 운영 등 의료공백 최소화

전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10월 3일~9일) 의료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 등 지역 내 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387개 병·의원과 153개 약국의 문을 열도록 유도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당장 추석 연휴기간 전주시지역 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북대학교 병원·예수병원·대자민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원 6곳의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된다.

특히 실야 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3개소(사랑약국·열약

국·365인후대형은누리약국)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전주다솜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가 운영되어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3개소(중진, 금상, 도덕)는 당번제 근무 방식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보건소 응급진료 상황실을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별 전담책임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

3900)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의 추석명절 연휴 통합정보 안내란과 전주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에 타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제공(e-gen)’ 앱을 통해 전국의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이밖에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

주변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설치하여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단 실사 환자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 근무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추석 연휴 동안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 상황실 및 감염병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작은도서관 사서가 직접 방문하는 '작은도서관과 함께읽기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과 함께읽기’ 운영

전주시, 사서가 초등학교 찾아 책 읽는 즐거움 선사

전주시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작은도서관 사서가 직접 방문하는 ‘작은도서관과 함께읽기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작은도서관과 함께읽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까지 학기 중 총 4회 진행된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사서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투표로 고른 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단순한 낭독을 넘어 ‘북토크’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학생들은 수업과 연계된 읽기 경험을 통해 독서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함께 키울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 또한 학교와 협력하며 지역 속 독서문화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참여 학교 모집을 통해 △전주대성초 △전주대정초 △전주서일초 △전주서천초 △전주신동초 △전주신성초 △전주온빛초 △전주용와초 △전주조촌초 △전주효문초 등 총 10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권희성 기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현장 목소리 청취·논의

전주시, 상인회 간담회 가져

전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유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인들과 시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상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은누리상품점 홍보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인회



전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유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와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골목형상점

가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

록 정책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점포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시는 총 2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운영중이며 점포수는 2700여 개에 달한다. 현재 1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에 있으며 올해 50개소 지정을 목표로 골목상권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전주시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및 은누리상품점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근무 성과와 자립 성과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제도로, 앞으로는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생계급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이어나가면 50만 원, 1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과 생계급여 탈수급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근로 지원을 넘어 성과와 자립을 보상은 체계를 마련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전주시는 25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에서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 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됐으며 전주시와 전주덕진소방서, 전북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훈련은 승강기가 1층에서 2층으로 이동 중 정전으로 인해 승객들이 승강기 내부에 갇히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승객 구조

요청 △관리주체 초기대응 △119 구조대와 유리관리업체 현장 출동 △승객 구조 순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됐다.

또한 훈련 종료 후에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승강기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의식과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겨울철 감염병 예방 무료접종

전주시는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연령대별로 순차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2025-2026 절기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50~64세 전주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이다.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9세 미만)는 지난 9월 22일부터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13세) 및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75세 이상(1950년생 이전)은 10월 15일부터 △70~74세(1951~1955년생)는 10월 20일부터 △65~69세(1956~1960년생)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은 관내 345개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지

정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주시에 주소를 둔 50~64세의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의 경우에도 10월 22일부터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면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백신 소진시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 만큼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평균 6개월)을 고려해 10~12월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르신 독감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두 백신의 접종을 원하는 경우 같은 날 동시에 접종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